

부채비율 '0'...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 취업률 호남 1위

조선대 2014년 빛났다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CK-1)사업, 2 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고교 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에 선정돼 '2014년 명품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조선대학교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대형 국책과제 가운데 교육(ACE사업, 고교교육 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구(CK-1사업 및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LINC사업) 부문을 모두 석권해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삼각 체제를 구축해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특히 조선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BK21플러스 사업을 포함하면 정부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5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전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5관왕' 대학이 된 조선대는 이밖에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차세대조기진단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정부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등 2012년 9월 서재홍 총장 취임 이래 1000억원이 넘는 외부자원을

학생 1인당 지원금 1132만원 경쟁력 갖추며 명품대학 도약

유치, 획기적인 대학 발전의 발판을 구축했다. CK-1사업은 5년, ACE사업은 4년, LINC사업은 5년(2+3), BK21플러스사업은 7년(3+4) 사업으로 이 기간에 조선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큰 동력을 갖게 되었다.

◇1인당 교육비, 재무 건정성 모두 최고=광주·전남 대학 중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으며 부채비율이 '0'으로 재무구조 초우량 대학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4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1인당 교육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조선대로 1132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연구비 등의 비용으로 등록금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또한 부채비율 '0'으로 최고등급을 차지하며

재무구조 초우량 대학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는 조선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이 부채비율 '0'인 1등급으로 파악됐다.

◇취업 격정도 '뚝'=올해 취업률도 '가' 그룹에서 전국 10위, 광주·전남북 1위를 차지해 '취업 잘되는' 대학으로 공인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취업률 55.4%로 '가' 그룹(졸업자 3000명 이상) 34개 대학 가운데 전국 10위와 호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학교는 2012년에도 취업률 52.6%로 전국 15위, 광주·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는 조선대는 그랜드슬램의 대기록 수립을 계기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지역의 교육, 산업, 경제, 고용, 문화, 복지의 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호남 제1의 거점대학이자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서재홍 총장

“혼자”보단 ‘함께’하는 문화인재 키우겠다”

“조선대는 ACE사업, LINC사업, CK-1사업 등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세우면서 교육과 연구·산학협력의 삼각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취임 직후 발표한 VISION 2020에서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으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깊게 가르치고 넓게 보살피는 대학문화를 만들어 '잘 가르치는 조선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을 것입니다.”

서재홍 총장은 “오늘날 우리 교육이 경쟁 위주로 성과 중심주의에 빠져 ‘홀로’형 인재를 양성했다는 반성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함께’형 인재를 조선대의 인재상으로 삼았다”면서 “‘함께’형 인재는 조선대 건학이념인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이라는 3개 목표를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정립한 인재상이다”고 설명했다.

“조선대의 강점은 공동체 정신과 배려하는 마음과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과 창의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역량인 Confidence, 창의융합역량인 Convergence, 배려봉사역량인 Consideration을 조선대의 3C 핵심역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세 단어에는 모두 ‘함께’라는 뜻인 ‘Con’이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한다는 뜻의 3C 핵심역량을 갖춘 ‘함께’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서재홍 총장은 “조선대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잘 이해하고, 미래를 잘 헤쳐 가는 학생으로 키우겠다”며 “그랜드슬램의 대기록 달성을 계기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GIST 연구진 유기태양전지 수명 연장 기술 개발

신소재공학부 이광희·공재민 교수

불순물 제거해 최대 10년까지 예상



이광희

공재민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유기태양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기태양전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짧은 수명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발광다이오드(LED) 등 다양한 유기 전자소자의 수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이광희(교신저자) 교수가 주도하고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공재민(제1저자)박사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온라인판 8일자에 게재됐다.

유기태양전지는 용액공정을 통해 저렴하게 대면적으로 인쇄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분자의 유연성을 이용한 차세대 플렉서블 전자소자(flexible electronics)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유기 태양전지는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

용수명이 매우 짧는데, 이는 고분자 같은 유기물 자체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 수명 손실의 핵심원인을 규명, 밝혀낸 원인을 바탕으로 용해도 기반 추출법을 통해 광활성 물질 내부에 있는 여러 종류의 분자 가운데서, 불순물로 작용하는 저분자들만 선택적으로 제거해 소자 효율은 40% 이상 향상되고 소자 수명은 최대 10년까지 예상되는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했다.

이광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기태양전지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짧은 수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기 디스플레이, 유기 LED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번-인 문제 및 다양한 유기 전자소자의 수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 탄력

발전계획·교육시설 등 6개 영역 통과

광신대학교(총장 정규남·왼쪽에서 세번째)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전체 6개 영역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지난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교육수요자 및 일반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질 평가를 통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국가간 학력인정 및 교류협력 증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2014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10개 대학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 사업과 대학 지원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인증은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광신대학교는 9월5일 서면평가 제출과 10월 1일~2일 현지방문평가단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는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과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과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 준거에 대해 진행됐다.

광신대학교 관계자는 “올해로 학교설립 60주년에 맞는 광신대는 이번 인증획득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대학 경쟁력을 인증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미래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시럽 일반(750g)	22,000원
가루(1kg)	38,000원
고체(1kg)	36,000원
강황(500g)	15,000원

무류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대상화재보험